

# 『傷寒論』에 나온 梔子の 涌吐효능에 대한 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玼宰 · 方正均\*

## 對於『傷寒論』的 梔子 涌吐功能之 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玼宰 · 方正均

『傷寒論』是東漢時期張機的著作，是韓醫學第一部臨床醫學傳著，這部書熔理法方藥於一爐，開辨證論治之先河，是古代醫學理論的奠基之作。

『傷寒論』當中使用梔子的處方有8種。

這些處方當中，梔子豉湯，梔子乾薑湯，梔子厚朴湯，梔子甘草豉湯，梔子生薑豉湯的下面都有一句‘得吐者 止後服’。這個句子可解釋為‘(服用該湯后)吐者停止繼續服用’。據此可以認為使用梔子的以上5個處方具有涌吐功能。對於這個觀點，歷代醫家有些持肯定性態度，有些認為是訛傳，持否定態度。

對此筆者根據如下三個方面，即：

第一，『神農本草經』和『名醫別錄』當中未提到梔子具有涌吐功能。

第二，使用梔子的其他三個方劑，未提到‘吐’。

第三，從提到這5個處方的條文內容來看，是不能使用吐法的。

認為‘得吐者，止後服’是後人誤添的句子，並且認為梔子無涌吐功能。

關鍵語：傷寒論，‘得吐者 止後服’，梔子，涌吐功能

## I. 序 論

『傷寒論』은 東漢시대 張機의 著書로 韓의 醫學 史上 初有의 醫學의 發展을 示한 著書로 20세기 에 이르기까지 醫學의 發展이 되는 後의 醫書 이다.<sup>1)</sup> 그러나 『傷寒論』은 原文이 極히 簡略하고 意味가 含蓄되어 있을 뿐 아니라 原文이 그대로 전해 오지 않는 關係로 原文의 일부에 대한 眞僞

와 編次에 관한 論難, 그리고 수많은 注釋本에서 나타난 여러 說의 紛紜한 견해로 인하여 그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sup>2)</sup> 그러나 論難이 많은 부분을 하나하나 명확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傷寒論』의 바른 意味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에는 異見이 없을 것이다.

『傷寒論』에는 梔子를 사용한 處方이 여덟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處方들 중 梔子豉湯 梔子

\* 交信著者：方正均,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 730-0666, bjkdcw@mail.sangji.ac.kr.

1) 文濬典 外,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2.

2) 文濬典 外,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 2.

3) 梔子豉湯, 梔子乾薑湯, 梔子厚朴湯, 枳實梔子豉湯, 梔子

乾薑湯 梔子厚朴湯 梔子甘草豉湯 梔子生薑豉湯 다섯 처방의 아래에는 모두 '得吐者 止後服'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이 湯을 복용하고) 嘔吐를 하는 者는 복용을 중지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 이 梔子가 君藥으로 쓰인 다섯 처방이 涌吐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대 醫家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訛傳된 것이라 부정하기도 하는 등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논자는 역대 醫家들의 견해를 요약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本 論

『傷寒論』에서 '得吐者 止後服'이라는 구절이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發汗後 水藥不得入口爲逆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復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梔子豉湯方

梔子十四個擘 香豉四合綿裹

上二味 以水四升 先煮梔子 得二升半 內豉 煮取一升半 去滓 分爲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

梔子甘草豉湯方

梔子十四個擘 甘草二兩炙 香豉四合綿裹

上三味 以水四升 先煮梔子 甘草 取二升半 內豉 煮取一升半 去滓 分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

梔子生薑豉湯方

梔子十四個擘 生薑五兩 香豉四合綿裹

上三味 以水四升 先煮梔子 生薑 取二升半 內豉 煮取一升半 去滓 分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

發汗 若下之 而煩熱 胸中窒者 梔子豉湯主之.

傷寒五六日 大下之後 身熱不去 心中結痛者 未欲解也 梔子豉湯主之.

甘草豉湯, 梔子生薑豉湯, 茵陳蒿湯, 梔子柏皮湯.

傷寒下後 心煩 腹滿 臥起不安者 梔子厚朴湯主之.

梔子厚朴湯方

梔子十四個擘 厚朴四兩去皮 枳實四枚浸水炙令黃

上三味 以水三升半 煮取一升半 去滓 分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

傷寒 醫以丸藥大下之 身熱不去 微煩者 梔子乾薑湯主之.

梔子乾薑湯方

梔子十四個擘 乾薑二兩

上二味 以水三升半 煮取一升半 去滓 分二服 溫進一服 得吐者 止後服<sup>4)</sup>

이상의 조문을 살펴보면 처방의 뒷부분에 분명 '得吐者 止後服'이라는 구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각 의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논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得吐者 止後服'을 긍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다섯 가지 약<sup>5)</sup>이 涌吐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경우이나, 그런 의가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梔子에 涌吐효능이 있다고 본 경우

##### ① 成無已

若發汗吐下後, 邪氣乘虛留于胸中則謂之虛煩, 應以梔子豉湯吐之. 梔子豉湯吐胸中虛煩者也. 梔子味苦寒. 『內經』曰 酸苦涌泄爲陰. 涌者, 吐之也. 涌吐虛煩, 必以苦爲主, 是以梔子爲君. 煩爲熱勝也, 涌熱者, 必以苦, 勝熱者, 必以寒. (發汗·吐·下한 뒤 邪氣가 虛한 틈을 타서 胸中에 머무르면 虛煩이라고 이르니, 당연히 梔子豉湯으로 吐하게 한

4) 張機, 『仲景全書·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158 ~161.

5) 梔子豉湯, 梔子乾薑湯, 梔子厚朴湯, 梔子甘草豉湯, 梔子生薑豉湯.

다. 梔子豉湯은 胸中の 虛煩을 吐하게 하는 약이다. 梔子는 맛이 쓰고 성질이 차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酸味와 苦味는 涌泄하여 陰이 된다.”고 하였다. 涌이라는 것은 吐하게 하는 것이다. 虛煩을 涌吐시키는 것은 반드시 苦味를 위주로 하니, 이에 梔子를 君藥으로 삼는다. 煩은 熱이 勝한 것인데, 熱을 涌吐시키는 것은 반드시 苦味로써 하고, 熱을 이기는 것은 반드시 寒으로써 한다.)<sup>6)</sup>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成無已는 梔子豉湯은 胸中の 虛煩을 吐하게 하는 것인데, 苦寒한 梔子가 君藥으로 사용되어 吐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盧之願

梔性輕浮, 宣氣四達, 能令堅結者解而上出.(梔子是 성질이 輕浮하고, 氣를 사방으로 通하게 하여, 堅結한 것을 풀어서 위로 나오게 할 수 있다.)<sup>7)</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盧之願는 梔子는 氣를 퍼뜨리는 효능이 있으면서 性이 輕浮하기 때문에 주로 上部에 작용을 하게 되어 涌吐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徐大椿

古方梔子皆生用, 故入口即吐, 後人作湯以梔子炒黑, 不復作吐 (古方에서는 梔子를 모두 生用하였으므로 복용하면 바로 吐하였으나, 後人들은 梔子를 炒黑하여 湯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용해도 吐하지 않게 된다.)<sup>8)</sup>

이 구절에서 보듯이 徐大椿은 古方에서는 梔子를 生用하였으므로, 涌吐효능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梔子를 炒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涌吐효능이 없다고 하여, 生用과 炒用에 따른 구분을 하였고, 涌吐효능은 生用할 경우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④ 章楠

汗吐下後, 而無有形實邪, 但氣火鬱逆, 虛煩懊憹, 故以梔豉輕揚清心火, 而涌散其邪, 若中虛少氣者,

加甘草益氣, 嘔者, 加生薑以散逆也. (汗·吐·下한 뒤에는 有形의 實邪가 없고 단지 氣火가 鬱逆하여 虛煩懊憹하므로, 梔子와 豆豉의 輕揚하여 心火를 맑게 하는 것으로써 그 邪氣를 涌散하는 것이다. 만약 中虛少氣한 자는 甘草를 加하여 益氣하고, 嘔하는 자는 生薑을 加하여 逆한 것을 散한다.)<sup>9)</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章楠은 氣火가 鬱逆하여 생긴 虛煩懊憹의 경우 性이 輕揚하고 心火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는 梔子로 涌散시킨다고 하여, 梔子에 涌吐효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梔子에 涌吐효능이 없다고 본 경우

① 劉完素

或吐者, 止後服. 凡諸梔子湯, 皆非吐人之藥, 以其燥熱鬱結之甚, 而藥頓攻之不能開通, 則鬱發而吐. 因其嘔吐, 發開鬱結, 則氣通, 津液寬行而已, 故不需再服也. (或 吐하는 자는 복용을 중지한다. 대개 모든 梔子湯은 사람을 吐하게 하는 藥이 아닌데, 그 燥熱의 鬱結이 심하여 藥으로 頓攻하여도 開通되지 않기 때문에 鬱結된 것을 開發해 吐하게 하는 것이다. 그 嘔吐시킴으로 인하여 鬱結한 것을 開發하면 氣가 通하고 津液이 寬行하게 되므로, 다시 복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sup>10)</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劉完素는 모든 梔子湯은 涌吐시키는 약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病人이 燥熱의 鬱結이 심하여 약으로 開通시킬 수 없을 때, 性이 輕浮하여 상부로 작용하는 梔子를 써서 鬱結된 燥熱을 開發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吐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涌吐가 목적이 아니라 鬱結된 氣를 通하게 하는 것이 梔子를 사용하는 이유인데, 梔子の 性이 輕浮하기 때문에 상부에 鬱結된 燥熱이 嘔吐를 통해 開發됨을 밝힌 것이다.

② 張璐

梔子體性輕浮, 專除心肺客熱… (梔子は 體性이 輕浮하여, 오로지 心肺客熱을 제거한다.)<sup>11)</sup>

6) 成無已,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629.

7) 岳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366.

8) 岳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362.

9) 岳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360.

10) 劉完素, 『河間醫集·傷寒直格』,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576.

仲景巧用 梔子豉湯, 涌載其邪於上, 使一吐而盡傳無餘. 然惟無形之虛煩, 用此爲宜, 若涌吐實煩, 仲景別有瓜蒂散, 卽非 梔子所能也.(仲景이 梔子豉湯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그 邪氣를 위로 涌載시켜, 한번 吐하게 하여 邪氣가 다 나와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직 無形의 虛煩에 이것이 마땅하니, 만약 實煩을 涌吐시킬 경우 仲景은 별도로 瓜蒂散을 두었으니, (實煩)은 梔子가 能할 바가 아니다.)<sup>12)</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張璐는 梔子は 體性이 輕浮하여, 오로지 心肺客熱을 제거하는 약인데, 仲景이 梔子豉湯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涌吐시켰다고 보고 있다. 즉 劉完素와 마찬가지로 梔子の 輕浮한 性이 上部의 虛煩을 涌散시키는 과정에서 病人이 吐를 하는 것이지, 梔子豉湯에 涌吐의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實煩과 虛煩을 치료하는 약을 구분하면서 有形의 實煩을 치료하는 瓜蒂散이 涌吐의 효능이 있는 것이고, 梔子豉湯은 無形의 虛煩에 적합한 약임을 밝히고 있다.

### ③ 柯琴

凡心病皆陽明表邪, 故制 梔子豉湯因而越之. …… 梔子苦能泄熱, 寒能勝熱, 其形象心, 又赤色通心, 故除心煩憤憤懊懣結痛等症. 豆形象腎, 制而爲豉, 輕浮上行, 能使心腹之邪上出於口, 一吐而心腹得舒, 表裏之煩熱悉除矣. …… 夫 梔子之性, 能屈曲下行, 不是上涌之劑, 惟豉之腐氣, 上熏心肺, 能令人吐耳. 觀瓜蒂散必用豉汁和劑服, 是吐在豉而不在 梔也. 此 梔子乾薑湯去豉用薑, 是取其橫散, 梔子厚朴湯以枳朴易豉, 是取其下泄, 皆不欲上越之義. 舊本兩方後概云得吐止後服, 豈不謬哉? 觀 梔子檳皮湯與茵陳湯中俱有 梔子, 俱不言吐, 又病人舊微瀉者不可與, 則 梔子之性自明. (대개 心病은 모두 陽明表邪이므로 梔子豉湯을 만들어 因而越之하게 한다. …… 梔子는 苦味가 熱을 泄할 수 있고 寒性이 熱을 勝하며, 그 형태가 心과 비슷하고 또 붉은

색이 心에 通하므로, 心煩·憤憤·懊懣·結痛 등의 症을 제거한다. 콩의 형태는 腎과 비슷한데, 豉로 만들면 輕浮한 성질이 上行하여 心腹의 邪氣를 입으로 上出하게 할 수 있으니, 한 번 吐하게 함에 心腹이 편안해 지고, 表裏의 煩熱이 모두 제거된다. …… 무릇 梔子の 성질은 屈曲下行할 수 있어 上涌하는 약은 아니니, 오직 豉의 腐氣가 心肺를 上熏하여 吐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瓜蒂散을 보면 반드시 豉汁을 약에 섞어 복용하니, 이것이 바로 涌吐효능은 豉에 있고 梔子에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梔子乾薑湯이 梔子豉湯에서 豉를 빼고 薑을 쓴 것은 그 橫散함을 取한 것이고, 梔子厚朴湯이 梔子豉湯에서 枳實과 厚朴으로 豉를 대신한 것은 그 下泄함을 취한 것이니, 모두 上越케 하고자 한 뜻이 아니다. 舊本의 두 처방 뒤에 '得吐, 止後服'을 말하였는데, 어찌 틀린 말이 아니겠는가? 梔子檳皮湯과 茵陳湯을 보면 모두 梔子가 들어있으나, 모두 吐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고, 또 病人이 오래도록 微瀉한 자는 梔子湯을 줄 수 없다고 하였으니, 梔子の 성질은 自명한 것이다.)<sup>13)</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梔子豉湯이 분명 涌吐효능이 있으나, 梔子는 苦寒한 性味로 泄熱하는 효능이 있을 뿐이고, 涌吐의 효능은 豆豉가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柯琴은 豆豉가 들어있지 않은 梔子厚朴湯 조문과 梔子乾薑湯 조문의 '得吐者, 止後服'은 틀린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梔子가 들어가지만 豆豉가 포함되지 않은 梔子檳皮湯과 茵陳湯에는 吐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舊微瀉者에게 梔子湯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梔子の 효능이 下行시키는데 있지 涌吐에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④ 汪琥

梔子豉湯仲景雖用以吐虛煩之藥, 余曾調此湯, 與病人服之, 未必能吐, 何也? 蓋 梔子之性苦寒, 能清胃火, 潤燥. 豉性苦寒微甘, 能瀉熱而兼下氣調中, 以其苦未必能使人吐也. 醫工必欲升散火鬱, 當於

11) 張璐, 『張璐醫學全書·本草逢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887.

12) 張璐,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571.

13) 柯琴, 『傷寒來蘇集·傷寒論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99~104.

病人喉中, 探之使吐可耳. 又用豉法, 須陳腐極臭者, 能使人吐, 方中雲香豉, 恐醫工用豉, 反取新制而氣不臭者, 無怪乎其不能使人吐也. (梔子豉湯을 仲景이 비록 虛煩을 吐하게 하는 약으로 썼으나, 내가 일찍이 이 湯을 만들어 病人에게 복용시켰는데 반드시 吐하지는 않았으니 어째서인가? 대개 梔子の 性은 苦寒하여 胃火를 맑게 하고 潤燥할 수 있다. 豉의 性은 苦寒하고 味甘하여 瀉熱하며 兼하여 下氣調中할 수 있다. 때문에 그 苦味가 반드시 사람을 吐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의사가 반드시 火鬱을 升散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病人의 喉中을 探吐하는 것이 可할 뿐이다. 또 豉法을 쓰는데, 반드시 오래 腐敗되어 냄새가 심한 것이 사람을 吐하게 할 수 있으니, 方中의 雲香豉라 한 것을, 의사가 豉를 쓰는데, 도리어 새로 만들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사용할까 염려되니, 그리하면 사람을 吐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sup>14)</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汪琥는 梔子豉湯을 사용할 때 반드시 涌吐효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즉 梔子の 경우 苦寒한 性을 함유하고 있어 清胃火하고 潤燥하는 효능이 있고, 豉는 苦寒하고 味甘하여 下氣調中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여, 苦味가 반드시 涌吐시킨다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火鬱을 제거하려면 病人을 探吐해야 하고, 또 涌吐의 목적으로 豉를 쓸 때는 반드시 새로 만든 豉가 아닌, 오래되어 냄새가 심하게 나는 雲香豉를 사용해야 病人을 吐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探吐하여 病人을 吐하게 해야 한다면, 梔子五湯의 복용법에서 분명 언급해 놓았을 것인데, 그런 언급이 없는 점은 의문이다.

⑤ 吳謙

梔子苦能涌洩, 寒能勝熱, 豆豉輕浮上行, 佐梔子使邪熱上越於口, 庶一吐而胸中舒, 煩熱解矣. …… 本草不言梔子爲吐劑, 仲景用之以爲吐者, 何也? 梔子本非吐藥, 以其味苦能吐, 故用之以涌其熱也. (梔

子の 苦味는 涌洩할 수 있고 寒性은 勝熱할 수 있으며, 豆豉는 輕浮上行하여 梔子를 補佐하여 邪熱을 입으로 上越하게 하니, 한번 吐함에 胸中이 편안해지고 煩熱이 풀리게 된다. …… 本草에서 梔子가 吐劑라 말하지 않았는데, 仲景이 梔子를 사용하여 吐하게 한 것은 어째서인가? 梔子는 본래 吐藥이 아니나, 그 맛이 써서 吐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여 그 熱을 吐하게 한 것이다.)<sup>15)</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吳謙은 梔子가 吐劑는 아니지만, 그 맛이 쓰기 때문에 吐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梔子에 반드시 輕浮上行하는 豆豉를 배합하여야 涌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梔子 자체에 涌吐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豆豉의 輕浮上行하는 효능과 梔子の 苦味가 상호 작용하여 涌吐의 효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⑥ 王晉三

梔子豉湯爲輕劑, 以吐上焦虛熱者也. 第梔子本非吐藥, 以此二者生熟互用, 涌泄同行, 而激之吐也. 蓋梔子生則氣浮, 其性涌, 香豉蒸窳熟腐, 其性泄. 涌者, 宣也, 泄者, 降也. 卽欲其宣, 又欲其降, 兩者氣爭于陽分, 自必從宣而越于上矣.(梔子豉湯은 輕劑로서 上焦의 虛熱을 吐하게 하는 약이다. 다만 梔子는 본래 吐藥이 아닌데, 이 梔子和 豉를 生用 熟用으로 함께 사용하여, 涌과 泄을 동시에 행하면 激하여 吐하게 된다. 대개 梔子를 生用하면 氣가 浮하여 그 性이 涌하고, 香豉를 煎 뒤에서 늘한 곳에서 숙성시켜 썩히면 그 性이 泄한다. 涌이라는 것은 宣하는 것이고, 泄이라는 것은 降하는 것이다. 즉 그 宣하고자 하고 또 그 降하고자 하니, 兩者의 氣가 陽分에서 다투어 저질로 위로 퍼지려는 기운을 따라 위로 越한다.)<sup>16)</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王晉三은 梔子가 본래 涌吐藥이 아니지만, 香豉와 함께 쓰면 涌吐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梔子の 성질이 浮하여 氣를 올리는 효능이 있지만, 그 자체에 涌吐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涌·泄의 상반된

15)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38

16) 岳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361.

14) 岳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361.

효능을 가진 生梔子와 熟香豉를 배합하면 宣·降의 氣가 陽分에서 다투어 涌吐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梔子 자체에 涌吐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2. '得吐者 止後服'을 부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梔子五湯이 涌吐효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경우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張志聰

舊本有一服得吐止後服七字。此因瓜蒂散中有香豉而誤傳于此也。今爲刪正。(舊本에 '一服得吐止後服'의 일곱 글자가 있는데, 이는 (涌吐효능이 있는) 瓜蒂散에 香豉가 있는 것으로 인해 여기에 잘못 전해진 것이다. 지금 刪正한다.)<sup>17)</sup>

梔子凌冬不凋，得冬令水陰之氣，味苦色赤，形圓小而象心，能啓陰氣上資於心，復能導心中之煩熱以下行。豆乃腎之穀，色黑性沈，寤熱而成輕浮，主啓陰藏之精上資於心胃。陰液上漲於心而虛煩自解，津液還入胃中而胃氣自和。……宜梔子導君火之氣以下行，香豉啓陰中之液以上達，陰陽上下相和而留中之虛熱自解矣。……宜梔子豉湯清表裏之餘熱，從外內以分消。(梔子是 겨울이 되어도 시들지 않고, 겨울 水陰의 氣를 얻어 맛이 쓰고 색이 붉고, 형태가 둥글고 작으며, 心의 모양과 비슷하여, 陰氣를 열어 위로 心을 도와주고 다시 心中의 煩熱을 끌고 下行할 수 있다. 콩은 腎의 곡식으로 색이 검고 성질이 沈한데,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성질이 輕浮해져 陰藏의 精을 열어 위로 心胃를 도와준다. 陰液이 위로 心으로 올라가면 虛煩이 저절로 풀리고, 津液이 胃中으로 돌아가 胃氣가 저절로 조화롭게 된다. …… 梔子は 君火의 氣를 이끌고 下行하고, 香豉는 陰中の 液을 열어 上達하게 하여, 陰陽이 上下에서 서로 조화롭게 되어, 속에 머무르고 있는 虛熱이 저절로 풀린다. …… 마땅히 梔子豉湯은 表裏에 남아 있는 熱을 맑게 하여, 안팎을 따라 나뉘어 사라지게 한다.)<sup>18)</sup>

17)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42.

이 문장에서 보듯이 張志聰은 舊本의 '一服得吐止後服' 일곱 글자는 涌吐효능이 있는 瓜蒂散 뒤에 있던 글인데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즉 瓜蒂散을 만들 때 香豉를 사용하는데, 梔子豉湯에도 豆豉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一服得吐止後服'의 일곱 글자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張志聰은 梔子豉湯의 涌吐효능을 부정하고, 虛煩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梔子의 君火를 下行시키는 효능과, 香豉의 陰液을 上達시키는 효능이 배합되어 虛煩이 풀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② 張錫駒

梔子色赤象心，味苦屬火而性寒，導火熱之下行也。豆爲水之穀，色黑性沈，蒸熱而復輕浮，引水液之上升也。陰陽和而水火濟，煩自解矣。……按梔子豉湯，舊說指爲吐藥，卽王好古之高明，亦云本草并不言梔子能吐，奚仲景用爲吐藥？此皆不能思維經旨，以訛傳訛者也。(梔子は 색이 붉고 모양이 心과 비슷하고, 맛이 써 火에 속하고 성질은 차가워 火熱을 끌고 下行한다. 콩은 水의 곡식으로, 색이 검고 성질이 沈한데, 蒸熟하면 다시 성질이 輕浮해져 水液을 끌고 上升한다. 陰陽이 조화롭게 되고 水火가 交濟하여 煩이 저절로 풀린다. …… 梔子豉湯을 살펴보면 舊說에 吐藥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바로 王好古의 高明함이고, 또 本草에는 아울러 梔子가 吐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어찌 仲景이 吐藥으로 사용했겠는가? 이는 모두 經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아, 잘못된 견해로 經의 뜻을 訛傳시킨 것이다.)<sup>19)</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張錫駒는 梔子와 香豉를 사용함으로 인해, 陰陽이 조화를 이루고 水火가 交濟하여 煩이 스스로 풀리는 것이고, 梔子가 涌吐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③ 陳念祖

少陰君火居上，少陰腎水居下，而中土爲之交通，

18)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643.

19) 劉波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 295.

若發汗吐下後，上中下三焦，俱爲之傷，是以上焦之君火不能下交於腎，下焦之腎水不能上交於心，火獨居上，陽不過陰，故心虛而煩。……以梔子入心，而下交於腎，豆豉入腎，而上交於心，水火交而諸證自愈。(少陰君火는 위에 居하고, 少陰腎水는 아래에 居하고, 中土는 위아래를 交通시킨다. 만약 發汗·吐·下한 뒤, 上中下 三焦가 모두 손상 받아 이로써 上焦의 君火가 腎에 下交하지 못하고, 下焦의 腎水가 心에 上交하지 못하면, 火가 위에 홀로 居하여 陽이 陰으로 지나가지 못하므로, 心虛하고 煩한다. …… 梔子가 心에 들어가 腎으로 下交하고, 豆豉가 腎으로 들어가 心에 上交하여, 水火가 交濟하게 되어 모든 증상이 스스로 낫는다.)<sup>20)</sup>

이 문장에서 보듯이 陳念祖는 梔子가 涌吐작용을 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梔子豉湯을 복용하면 梔子가 心으로 들어가 腎에 下交하고, 豆豉가 腎으로 들어가 心에 上交하여, 水火가 交濟하여 諸證이 스스로 낫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張志聰의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梔子가 腎에 下交하는 것은 火를 下行시키는 것이고, 豆豉가 心에 上交하는 것은 陰液을 上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火를 下行시키고 水를 上達시키는 것을 水火交濟로 인식한 것이니, 梔子和 豆豉의 효능은 水火交濟를 도와 虛煩을 치료하는 것이지 涌吐의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 ④ 高學山

梔子五湯，方後俱綴‘得吐者，止後服.’愚謂此必叔和撰添，前賢不察，遂訛傳致誤耳，非仲景之原文也。蓋以五症之不可用吐者，其辨有三，而五湯之不能致吐者，其驗有二也。所謂不可用吐者何？夫梔子五湯，大概俱治煩之藥，故本條曰心煩，次條曰微煩，三條曰煩熱，又曰虛煩，彼吐之內煩，又明明說出變處，豈有治煩而反用吐者乎？又下文三條曰：若嘔者，梔子豉湯主之。夫三尺之童，俱知薑爲止嘔之聖藥，若是吐劑，因其嘔而吐之，則高因丘陵，下因川澤，其理最順，何必加生薑以止嘔也？又曰 凡用梔

子湯，舊微瀉者不可與。夫發汗之劑，禁用於表虛，潤下之劑，禁用於瀉瀉，宣吐之劑，禁用於善嘔，各有針鋒相對，若是吐劑，當曰：病人善嘔者，不可與服矣。今禁在微瀉，明明是降而潤下之劑，與高者越之何涉乎？所謂不能致吐者何？余嘗治一女，傷寒表解胃實，與大承氣下之，煩而後作表熱，余知爲梔子之理，減用成方之半，應劑而愈，特未嘗吐耳。因思古人嘗藥，諸毒不避，後世得蒙其澤，況梔子五湯，非毒藥之比乎！遂於兩月中，滿劑遍服五湯，并無偶而一吐，但覺腹內微痛，及瀉洩日許而已，故敢大膽謂湯後一語，非仲景之原文，屬後人之蛇足也。(梔子五湯 처방의 뒤에 모두 ‘得吐者，止後服’이라는 구절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구절은 반드시 王叔和가 끼워넣은 것인데, 前賢들이 살피지 않아 마침내 訛傳되어 틀린 것일 뿐이고, 仲景의 원문은 아니다. 대개 五症의 吐法을 쓸 수 없는 것에 그 辨別할 것이 세 가지 있고, 五湯이 吐하게 할 수 없는 것에 그 疋할 수 있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吐法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릇 梔子五湯은 대개 煩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러므로 本條에 心煩이라 말하였고, 次條에 微煩이라 하고, 三條에 煩熱이라 하고 또 虛煩이라 하였으니, 저 吐하게 해야 한다는 內煩은 또한 명확하게 變處를 설명한 것이니, 어찌 煩을 치료하는데 도리어 吐法을 쓰는 경우가 있는가? 또 아래 三條에서 말하기를 ‘만약 嘔하는 자는 梔子豉湯으로 주치한다.’고 하였으니, 무릇 三尺童子도 모두 生薑이 止嘔의 聖藥이라는 것을 아는데, 만약 이 약이 吐劑이고 그 嘔함에 因하여 吐하게 하였다면, 丘陵에 因하여 높게 쌓고, 川澤에 因하여 땅을 파는 것이 그 이치상 가장 순리적인 것인데, 하필 生薑을 加하여 嘔를 멎게 하겠는가? 또 말하기를 ‘무릇 梔子湯을 사용함에 오래 微瀉하는 자는 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무릇 發汗之劑는 表虛에 쓰지 않고, 潤下之劑는 泄瀉에 쓰지 않고, 宣吐之劑는 善嘔에 쓰지 않아, 각기 미세한 증세의 차이에 따라 적합한 치법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吐劑라면, 당연히 ‘病人이 오래 善嘔한 자는 복용할 수 없다.’고 했어

20) 孫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359.

야 하는데, 지금 微瀉하는 것에 복용을 禁하였으니, 명백히 이는 내리고 潤下하는 약이지 病이 높고 있어 넘겨 吐하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른바 이 약이 吐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일찍이 한 여성을 치료하였는데, 傷寒病에 表가 풀리고 胃가 實하여, 大承氣湯으로 瀉下하였더니, 煩한 뒤 表熱이 생겼다. 내가 梔子와 豆豉의 妙理를 알아, 처방을 半으로 減하여 썼더니 약을 먹고 나왔고 吐하지는 않았다. 그로 因해 생각해 보면, 古人이 약을 맛봄에 毒藥을 피하지 않아 後世 사람들이 그 은택을 입은 것이니, 하물며 梔子五湯은 毒藥에 비할 바가 아님에 있어서라! 마침내 兩月中에 처방의 量을 다하여 다섯 湯을 두루 복용하였는데, 한번도 吐하지 않았고, 다만 背속이 약간 아프고, 설사를 하루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뒤의 구절은 仲景의 원문이 아니며, 後人の 蛇足이라고 감히 생각한다.)<sup>21)</sup>

이 글에서 보듯이 高學山은 ‘得吐者, 止後服’은 王叔和가 지어 넣은 것으로, 잘못 전해진 것일 뿐, 仲景의 原文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 梔子五湯<sup>22)</sup>은 煩을 치료하는 약이고, 涌吐효능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高學山은 發汗劑·潤下劑·涌吐劑의 禁忌證을 나열하고, 傷寒論 원문에서 梔子五湯의 경우 嘔吐症을 치료한 것을 예로 들어 이치 상 嘔吐症을 치료하는 약이 涌吐劑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임상경험을 제시하여 梔子五湯은 涌吐劑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蔡仁植

成註以後로 諸家들이 本方<sup>23)</sup>을 모두 吐劑라 하나 張氏集註와 張錫鈞傷寒直解에 吐劑가 아니라고 斷案하였으니 이른바 千古의 隻眼이라 하겠다. 吐한 뒤의 虛煩을 또 吐할 條件이 없다. 梔子五湯證에 嘔한 자는 生薑을 加하여 嘔를 治한다 하였는데 어찌 吐劑라 하겠는가? 服法의 이하 得吐

者止後服의 六字는 後人の 誤添이니 削除하여야 한다. 以下の 四方도 여기에 準한다.<sup>24)</sup>

이 글에서 보듯이 蔡仁植은 梔子五湯은 吐劑가 아니며, 복용법 아래에 있는 ‘得吐者 止後服’이라는 구절은 後인이 잘못 넣은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3. 논자의 견해

논자는 梔子五湯 복용법 아래에 있는 ‘得吐者 止後服’은 後人の 잘못으로 들어간 구절이며, 梔子에는 涌吐하는 효능이 없다는 주장을 따른다. 논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의 梔子에 대한 설명에 涌吐효능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梔子 味苦 寒 主五內邪氣 胃中熱氣 面赤 酒麴 齟鼻 白癩 赤癩 瘡癢.<sup>25)</sup>

大寒 無毒. 療目赤熱痛 胸心 大小腸大熱 心中煩悶. 一名牧丹. 一名越桃. 生南陽川谷. 九月採實 暴乾.<sup>26)</sup>

이상의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자에는 涌吐의 효능이 없다. 만일 梔子에 涌吐효능이 있다면 분명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에서 언급하였을 것이니, 예를 들어 瓜蒂의 경우는 涌吐효능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sup>27)</sup>

둘째, 『傷寒論』에 나온 梔子가 들어간 나머지 처방에서는 ‘得吐者 止後服’과 같은 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傷寒論』에 梔子가 들어간 처방은 梔子五湯 梔子乾薑湯 梔子厚朴湯 枳實梔子五湯 梔子甘草五湯 梔子生薑五湯 茵陳蒿湯 梔子柏皮湯 여덟 가지이다. 이 처방들 중 梔子五湯 梔子乾薑湯 梔子厚

24)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95, p. 71.

25) 馬繼興, 『神農本草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259.

26)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144.

27) 鄒澍著, 임진석음감: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8. “瓜 味苦 寒 有毒. 主大水身面 四肢浮腫 下水 殺蠱毒 欬逆上氣 及 食諸果 病在胸腹中皆吐下之. 去鼻中息肉. 療黃疸 生嵩高平澤. 七月 七日 採陰乾.”

21) 岳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 362.

22) 梔子五湯, 梔子甘草五湯, 梔子生薑五湯, 梔子厚朴湯, 梔子乾薑湯.

23) 梔子五湯을 가리킴

朴湯 梔子甘草豉湯 梔子生薑豉湯 다섯 가지에만 복용 법 뒤에 ‘得吐者 止後服’이라는 구절이 있고, 나머지 枳實梔子豉湯과 茵陳蒿湯 梔子柏皮湯에는 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만약 梔子에 涌吐 효능이 있고 ‘得吐者 止後服’이 잘못 들어간 구절이 아니라면, 梔子が 主藥으로 사용된 枳實梔子豉湯 茵陳蒿湯 梔子柏皮湯에 대한 설명에도 吐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得吐者 止後服’은 後人의 잘못으로 들어간 구절이며, 梔子에는 涌吐하는 효능이 없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得吐者 止後服’ 구절이 언급된 『傷寒論』의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吐法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인 점이다.

發汗後 水藥不得入口爲逆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復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이 조문을 보면, 病人을 發汗하여 逆이 되었는데 다시 發汗하여 吐下가 멎지 않고, 虛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만으로도 환자가 많이 虛해진 상태일 것인데, 더 심한 상태가 되어 反復顛倒하고 心中懊憹한 사람에게 梔子豉湯을 주어 涌吐시킨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다. 또 少氣한 사람을 굳이 補益하는 효능을 가진 甘草를 加하여 梔子甘草豉湯으로 涌吐시키고, 嘔吐症이 있는 사람을 굳이 그 嘔吐를 가라앉히는 효능을 가진 生薑을 加하여 梔子生薑豉湯으로 涌吐시킨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梔子는 煩熱을 풀고, 甘草가 少氣를 補益하고, 生薑이 嘔를 가라앉힌다는 설명이 더욱 타당하다.

또 梔子에 涌吐효능이 있어 梔子五湯이 涌吐를 목적으로 쓰였다면, 굳이 少氣한 사람에게 甘草를 加하고, 嘔하는 사람에게 生薑을 加하고, 心煩腹滿한 사람에게 厚朴을 쓰고, 身熱不去 微煩한 사람에게 乾薑을 쓸 필요가 없이, 梔子豉湯 혹은 梔子만으로 涌吐시키면 되었을 것이고, 오히려 吐를 마친 뒤 甘草, 生薑 등을 복용케 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였을 것이다. 이는 바로 梔子五湯이 涌吐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님을, 또 梔子에 涌吐효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논자는 梔子五湯 및 그 君藥인 梔子에는 涌吐효능이 없으며, 다섯 처방의 아래의 복용법에 나온 ‘得吐者 止後服’이라는 구절은 後人의 잘못으로 들어가 訛傳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덧붙여 梔子는 단지 위의 다섯 조문<sup>28)</sup>에서 볼 수 있듯이 發汗 및 吐·下로 인해 생긴 虛煩, 煩熱, 身熱, 心煩, 微煩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약제라고 본다.

### III. 結 論

1. ‘得吐後 止後服’을 긍정하는 醫家들은 梔子에 涌吐 효능이 있다고 보는 醫家와 梔子에 涌吐효능이 없다고 보는 醫家로 나눌 수 있다.

梔子에 涌吐효능이 있다고 보는 醫家로는 成無己, 盧之頤, 徐大椿, 章楠 등이 있다. 成無己와 盧之頤, 章楠은 본래 梔子에 涌吐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徐大椿은 梔子를 炒黑하지 않고 生用해야 涌吐효능이 있다고 보았다.

梔子에 涌吐효능이 없다고 보는 醫家로는 劉完素, 張璐, 柯琴, 汪琥, 吳謙, 王晉三 등이 있다. 劉完素와 張璐는 梔子에 吐劑는 아니지만 輕浮한 性으로 상부의 鬱結된 燥熱을 開發시키는 과정에서 吐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柯琴과 汪琥는 梔子에 아닌 豆豉에 涌吐효능이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汪琥는 探吐법을 병행해야 하고 만든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나는 雲香豉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吳謙과 王晉三은 梔子와 豆豉를 함께 사용할 때 涌吐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28) 發汗後 水藥不得入口爲逆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復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

發汗 若下之 而煩熱 胸中空者 梔子豉湯主之.

傷寒五六日 大下之後 身熱不去 心中結痛者 未欲解也 梔子豉湯主之.

傷寒下後 心煩 腹滿 臥起不安者 梔子厚朴湯主之.

傷寒 醫以丸藥大下之 身熱不去 微煩者 梔子乾薑湯主之.

2. '得吐後 止後服'을 부정하는 醫家들은 張志聰 張錫駒 陳念祖 高學山 蔡仁植 등이 있다. 張志聰은 '一服得吐止後服'는 瓜蒂散 뒤에 있는 것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하였다. 한편, 梔子が 君火를 下行시키고 香豉가 陰液을 上達시킴으로 인해 虛煩이 치료된다고 인식하였다. 張錫駒와 陳念祖도 虛煩의 치료기전에 대해 張志聰의 견해를 따르면서 涌吐효능을 부정하고 있다. 高學山은 梔薑豉湯이 嘔吐症을 치료하는 것을 예로 들어 梔子五湯이 涌吐劑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蔡仁植도 張志聰의 견해를 따라 梔子豉湯은 吐劑가 아니며, '得吐者 止後服' 구절은 後人이 잘못 넣은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3. 논자는 '得吐者 止後服'은 後人의 잘못으로 들어간 구절이며, 梔子에는 涌吐하는 효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논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의 梔子에 대한 설명에 涌吐효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 梔子에 涌吐효능이 있다면, 瓜蒂의 경우와 같이 분명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에서 언급하였을 것이다.

둘째, 『傷寒論』에 나온 梔子が 들어간 나머지 처방에서는 '得吐者 止後服'과 같은 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 만약 梔子에 涌吐효능이 있고, '得吐者 止後服'이 잘못 들어간 구절이 아니라면, 枳實梔子豉湯 茵陳蒿湯 梔子柏皮湯에 대한 조문이나 복약법에도 吐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셋째, '得吐者 止後服' 구절이 언급된 『傷寒論』의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吐法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發汗後 水藥不得入口爲逆 若更發汗 必吐下不止 發汗吐下後 虛煩不得眠 若劇者 必反復顛倒 心中懊憹 梔子豉湯主之 若少氣者 梔子甘草豉湯主之 若嘔者 梔子生薑豉湯主之."의 조문은 病人을 發汗하여 逆이 되었고, 다시 發汗하여 吐下가 멎지 않고 虛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등 病人이 虛해진 상태인데, 더 심해져 反復顛倒하고 心中懊憹한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

경우 涌吐를 목적으로 梔子豉湯을 준다는 것은 이치상 합당하지 못하다. 또 少氣한 사람을 굳이 梔子甘草豉湯으로 涌吐시키고, 嘔吐症이 있는 사람을 굳이 梔子生薑豉湯으로 涌吐시킨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梔子は 煩熱을 풀고, 甘草가 少氣를 補益하고, 生薑이 嘔를 가라앉힌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 梔子에 涌吐효능이 있어 梔子五湯이 涌吐약으로 쓰였다면 甘草 生薑 厚朴 乾薑 등을 가감할 필요가 없이 梔子豉湯 혹은 梔子만으로 涌吐시킨다, 甘草와 生薑 등의 약을 복용케 하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이는 곧 梔子五湯을 涌吐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며, 또 梔子에 涌吐효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IV. 參考文獻

1. 柯琴, 『傷寒來蘇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2.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3. 馬繼興, 『神農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4. 文潯典 外, 『傷寒論精解』,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5. 聶惠民 外, 『傷寒論集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6. 成無已,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7.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8. 劉完素, 『河間醫集·傷寒直格』,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9. 劉波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10. 張機,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1. 張璐,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2.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3. 蔡仁植, 『傷寒論譯註』, 서울, 高文社, 1995.
14. 鄒澍 著, 임진석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8.